

WEBVTT

00:00:10.106 --> 00:00:11.313
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
00:00:11.413 --> 00:00:12.465

김태동 선생입니다.

00:00:12.565 --> 00:00:15.146

오늘 이 시간에는 실전
문제가 총 5개가 있는데,

00:00:15.246 --> 00:00:18.742

오늘 실전 문제 1과 2를
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.

00:00:18.842 --> 00:00:21.869

첫 번째 롤즈의 정의론이라고
하는 내용인데요.

00:00:21.969 --> 00:00:23.549

문제를 한번 먼저 볼까요?

00:00:23.649 --> 00:00:26.840

1번은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
적절한 것을 찾는 거고요.

00:00:26.940 --> 00:00:30.135

2번은 롤즈가 전제하고 있는
내용과 거리고 먼 것을

00:00:30.235 --> 00:00:32.037

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.

00:00:32.137 --> 00:00:35.505

롤즈의 정의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
전제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.

00:00:35.605 --> 00:00:39.238

그 전제조건을 바로 줄여서 전제라고
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00:39.338 --> 00:00:42.489

3번은 롤즈가 관심을 가지고
있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0:42.589 --> 00:00:46.679

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
롤즈의 견해를 중심 내용으로

00:00:46.779 --> 00:00:48.448

찾아봐라, 이런 뜻이겠죠.

00:00:48.548 --> 00:00:51.238

윗글의 롤즈와 보기의
노직을 비교한 내용으로

00:00:51.338 --> 00:00:52.914

적절하지 않은 것을
찾으라고 그랬는데.

00:00:53.014 --> 00:00:56.557

윗글에 롤즈라는 사람의 입장이 나왔으니까 그것과 비교되는

00:00:56.657 --> 00:00:59.421

여기 보기에 나오는 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인지를

00:00:59.521 --> 00:01:01.161

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요.

00:01:01.261 --> 00:01:02.709

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01:02.809 --> 00:01:04.518

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.

00:01:04.618 --> 00:01:10.177

롤즈는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다.

00:01:10.277 --> 00:01:15.109

말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다.

00:01:15.209 --> 00:01:17.242

자의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네요.

00:01:17.342 --> 00:01:20.517

제가 결론부터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, 글 읽기 자세가 아니니까.

00:01:20.617 --> 00:01:24.507

자의적이라는 말이 뭘지 밑에 똑같이, 밑에 설명이 되어야겠죠.

00:01:24.607 --> 00:01:27.233

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다.

00:01:27.333 --> 00:01:31.745

그의 이런 생각은 일단 어떤 사회에서 모든 개인이 똑같이

00:01:31.845 --> 00:01:34.020

대우받을 가능성이 없으며.

00:01:34.120 --> 00:01:36.252

똑같이 대우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

00:01:36.352 --> 00:01:38.021

불평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.

00:01:38.121 --> 00:01:41.513

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과 직책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여러 재화가.

00:01:41.613 --> 00:01:44.089

재화, 상품이나 돈이나

이런 거겠죠.

00:01:44.189 --> 00:01:48.211
상이하게, 서로 다르게 분배될 수밖에
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.

00:01:48.311 --> 00:01:51.026
즉, 다시 말하면 불평등이
존재하고 있으니까

00:01:51.126 --> 00:01:53.049
이런 정의론을 내세운 거예요.

00:01:53.149 --> 00:01:54.724
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니까.

00:01:54.824 --> 00:01:57.218
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어떤 차등이.

00:01:57.318 --> 00:02:00.378
차등, 불평등을 얘기하겠죠.

00:02:00.478 --> 00:02:03.456
차등이 도덕적으로 옹호되고
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

00:02:03.556 --> 00:02:05.315
문제에 초점이 맞춰져
있다고 볼 수 있다.

00:02:05.415 --> 00:02:07.131
즉, 차등을 주잖아요.

00:02:07.231 --> 00:02:10.176
차등을 주는 게 도덕적으로
그걸 옹호할 수 있는지,

00:02:10.276 --> 00:02:14.478
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
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

00:02:14.578 --> 00:02:16.125
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

00:02:16.225 --> 00:02:19.025
다시 정리하면 자의적인
불평등이 없는 상태야.

00:02:19.125 --> 00:02:22.775
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제조건은
뭐냐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

00:02:22.875 --> 00:02:26.470
존재한다는 거고, 그러면
이런 차등이라고 하는,

00:02:26.570 --> 00:02:28.423
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,
불평등이라고 하는 게

00:02:28.523 --> 00:02:31.149

바로 차등이라는 말과 대체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.

00:02:31.249 --> 00:02:34.760
이런 차등이 과연 도덕적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

00:02:34.860 --> 00:02:37.186
문제가 시작된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

00:02:37.286 --> 00:02:41.500
롤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이다.

00:02:41.600 --> 00:02:43.627
첫 번째는 이기적 인간이라고 봤어요.

00:02:43.727 --> 00:02:46.956
이런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

00:02:47.056 --> 00:02:49.453
개입하여 제도를 만든다.

00:02:49.553 --> 00:02:52.464
첫 번째는 이기적이다.

00:02:52.564 --> 00:02:55.672
그래서 두 번째는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, 이렇게 본 거죠.

00:02:55.772 --> 00:02:57.250
정부가 개입해야 된다.

00:02:57.350 --> 00:02:59.549
핵심어 옆에다 메모만 하겠습니다.

00:02:59.649 --> 00:03:01.967
그러므로 그의 과제는 이런 이기적인 존재들이

00:03:02.067 --> 00:03:06.264
이익 충돌을 해결해주는 제도적 원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

00:03:06.364 --> 00:03:08.385
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.

00:03:08.485 --> 00:03:12.766
그러면 이런 이기적 인간들이 정부가 개입하는 이 제도를

00:03:12.866 --> 00:03:16.270
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죠.

00:03:16.370 --> 00:03:20.593
받아들여야만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거니까

00:03:20.693 --> 00:03:24.812
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
사회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.

00:03:24.912 --> 00:03:27.480
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이
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죠.

00:03:27.580 --> 00:03:33.090
그는 정의로운 절차와 정의로운
결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였다.

00:03:33.190 --> 00:03:35.921
정의로운 절차가 있더라도
정의로운 결과가

00:03:36.021 --> 00:03:37.429
반드시 나타나는 건 아니다,
이렇게 본 거예요.

00:03:37.529 --> 00:03:41.591
정의로운 절차와 정의로운
결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였다.

00:03:41.691 --> 00:03:45.461
그렇다고 롤즈가 절차적
정의의 수립을 위해서

00:03:45.561 --> 00:03:48.083
결과적 정의를 무시하고
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.

00:03:48.183 --> 00:03:49.716
오히려, 무슨 얘기야?

00:03:49.816 --> 00:03:55.878
서로 별개라고 생각했지만,
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정의.

00:03:55.978 --> 00:03:57.752
아까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

00:03:57.852 --> 00:04:01.048
절차적 정의를 수립하기
위해서 결과적 정의 자체가

00:04:01.148 --> 00:04:03.032
무시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.

00:04:03.132 --> 00:04:06.346
충분히 배려를 하면서 말을 했다,
똑같다고 본 건 아니다.

00:04:06.446 --> 00:04:09.099
별개지만, 별개라고 본 거지만

00:04:09.199 --> 00:04:12.945
아예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
않는다는 거예요.

00:04:13.045 --> 00:04:17.101

오히려 그는 절차적 정의를
통해서 결과의 정의까지

00:04:17.201 --> 00:04:19.258
최대한 보장하려고 예를 들었어요.

00:04:19.358 --> 00:04:22.254
주장을 했습니다.

00:04:22.354 --> 00:04:26.561
예를 들어서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,
예시를 통해서 이해합니다.

00:04:26.661 --> 00:04:32.040
예를 들어서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
공정하게 진행한 결과에 따라

00:04:32.140 --> 00:04:34.446
당첨자와 탈락자가 생겼어요.

00:04:34.546 --> 00:04:38.186
당첨과 탈락은 비록 큰 차이를
갖는 것이기는 하지만,

00:04:38.286 --> 00:04:42.855
그것을 부정한 결과로
받아들이지는 않는 것과 같이.

00:04:42.955 --> 00:04:45.336
그걸 정의롭다고 생각하잖아, 왜?

00:04:45.436 --> 00:04:47.285
절차가 정의롭게 진행됐으니까.

00:04:47.385 --> 00:04:52.278
추첨을 하는데 거기에 공예
오돌토돌한 면이 있어.

00:04:52.378 --> 00:04:55.472
그런 것들이 있다면 절차적
정의가 무시된 거지만,

00:04:55.572 --> 00:04:59.245
그런 절차적 정의가 지켜졌다면
추첨에 당첨된 사람하고

00:04:59.345 --> 00:05:01.879
떨어진 사람이 있을 때 결과는
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만,

00:05:01.979 --> 00:05:04.939
그 과정은 정의롭다 이렇게
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05:05.039 --> 00:05:07.632
부정한 결과로 받아들이지는
않는 것과 같이

00:05:07.732 --> 00:05:11.456
롤즈는 정의의 문제도 올바른
절차를 거친다면, 핵심이죠?

00:05:11.556 --> 00:05:15.735
올바른 절차를 거친다면 구성원들에게
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00:05:15.835 --> 00:05:18.748
지금 우리 사회의
공정성이라고 하는 게

00:05:18.848 --> 00:05:21.018
상당히 큰 화두로
던져지고 있잖아요.

00:05:21.118 --> 00:05:25.746
20대들이 우리 얼마 전에
남북 단일팀의 문제에 대해서

00:05:25.846 --> 00:05:28.640
문제 제기를 한 가장 큰
이유는 통일에 대한 이런 건

00:05:28.740 --> 00:05:33.141
다 그냥 치워버리고 절차적
정당성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

00:05:33.241 --> 00:05:36.909
문제 제기를 하면서 남북 단일팀에
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

00:05:37.009 --> 00:05:38.093
제가 본 적이 있어요.

00:05:38.193 --> 00:05:41.578
그건 절차적 정의가 실현됐다면,
절차적 정의가 됐다면

00:05:41.678 --> 00:05:43.826
남북 단일팀에 대해서
받아들일 수 있겠죠.

00:05:43.926 --> 00:05:45.781
그러니까 지금 중시되고
있는 건 바로 뭐냐면

00:05:45.881 --> 00:05:47.377
절차적 정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.

00:05:47.477 --> 00:05:51.619
절차 과정이 과연 정당한 거냐,
이걸 묻고 있는 거였죠.

00:05:51.719 --> 00:05:55.355
그렇다면 첫 번째는 절차적
정의가 지켜지면 된다.

00:05:55.455 --> 00:05:57.963
그렇다고 결과적 정의를
무시하는 건 아니다.

00:05:58.063 --> 00:06:02.207
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

정의를 확립할 수 있을까?

00:06:02.307 --> 00:06:05.080
정의가 확립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

00:06:05.180 --> 00:06:08.257
그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
설명하고 있습니다.

00:06:08.357 --> 00:06:13.675
이에 대해 롤즈는 계약을 절차의
기본적인 원리로 도입하였다.

00:06:13.775 --> 00:06:14.827
뭐라고요?

00:06:14.927 --> 00:06:16.052
계약입니다.

00:06:16.152 --> 00:06:20.892
계약이 있어야지만 그
계약이라는 절차가 기본적으로

00:06:20.992 --> 00:06:24.367
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
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.

00:06:24.467 --> 00:06:28.369
형식적으로 볼 때 계약이라고
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

00:06:28.469 --> 00:06:31.927
자신들의 욕구를 최선으로 반영한
것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

00:06:32.027 --> 00:06:36.456
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
이미 공정성을 포함하고 있다고

00:06:36.556 --> 00:06:37.969
생각했어요.

00:06:38.069 --> 00:06:44.139
그러나 특수한 사회 관계적 상황은
분명 계약의 형식적 공정성에

00:06:44.239 --> 00:06:45.642
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.

00:06:45.742 --> 00:06:47.806
무슨 뜻일까요?

00:06:47.906 --> 00:06:50.160
우리 왜 정규직과
비정규직이 있잖아요.

00:06:50.260 --> 00:06:53.777
회사나 이런 데 보면 정규직과의
계약, 비정규직과의 계약

00:06:53.877 --> 00:06:54.732

이런 것도 있고.

00:06:54.832 --> 00:06:58.258

여러분 아르바이트만
해도 최저시급에 대해서

00:06:58.358 --> 00:06:59.806

그냥 구두로 계약할 수도 있고,

00:06:59.906 --> 00:07:03.150

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칠천육백
얼마지만, 최저시급이 그렇지만.

00:07:03.250 --> 00:07:06.792

예를 들어서 편의점 사장이 너
학생이니까 6000원만 줄게.

00:07:06.892 --> 00:07:09.501

하기 싫으면 나가고,
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

00:07:09.601 --> 00:07:15.460

사회적 약자 입장인 청소년들 같은
경우는 어쩔 수 없죠, 뭐.

00:07:15.560 --> 00:07:17.053

그렇게 계약서 쓰고
이럴 수 있는 거잖아.

00:07:17.153 --> 00:07:20.792

물론 그게 철저히 지금은 안
됩니다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.

00:07:20.892 --> 00:07:24.756

계약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
절차라고 하는 게 절차적 정의의

00:07:24.856 --> 00:07:29.888

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긴 하지만,
그게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서는

00:07:29.988 --> 00:07:33.225

형식적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
끼칠 수 있는 거죠.

00:07:33.325 --> 00:07:38.268

따라서 롤즈는 자신의 순수한
절차적 정의 원리 수립을 위해서

00:07:38.368 --> 00:07:45.785

그와 같은 계약 개념은 도입하되
그 계약 원리 수립에 있어서

00:07:45.885 --> 00:07:49.354

계약의 조건들이 계약
당사자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

00:07:49.454 --> 00:07:50.887

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.

00:07:50.987 --> 00:07:55.278

특수한 상황에 영향받지 않도록
일정한 상황을 설정해서,

00:07:55.378 --> 00:07:59.148
이것이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는
가상 상황을 설정한 거야.

00:07:59.248 --> 00:08:01.087
칠판 이쪽으로 올게요.

00:08:01.187 --> 00:08:04.636
계약이라고 하는 것에서 불평등이 어느
정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.

00:08:04.736 --> 00:08:08.665
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의
영향을 전혀 받지 않도록.

00:08:08.765 --> 00:08:17.286
즉, 다시 말하면 특수한 여건에 영향을
받지 않도록, 이런 뜻입니다.

00:08:17.386 --> 00:08:23.469
영향 받지 않도록 어떤 상황을 설정해
놓냐면 원초적인 입장을 뒹요.

00:08:23.569 --> 00:08:27.447
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
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,

00:08:27.547 --> 00:08:32.845
다른 조건들을 하나도 보지
않고 딱 원칙적인 상황,

00:08:32.945 --> 00:08:35.222
가장 기본적인 상황만
보겠다는 거죠.

00:08:35.322 --> 00:08:37.194
그게 바로 이제 절차적 정의.

00:08:37.294 --> 00:08:41.935
즉,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기
위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.

00:08:42.035 --> 00:08:45.645
여기에서 롤즈라고 하는 사람이
원초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

00:08:45.745 --> 00:08:49.424
어떤 가치 기준도 갖고 있지
않은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았다.

00:08:49.524 --> 00:08:53.405
어떤 가치 기준도 갖고 있지 않은
사람, 그게 바로 원초적 입장이야.

00:08:53.505 --> 00:08:55.560
그건 아니라는 거죠.

00:08:55.660 --> 00:08:57.794

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
활용되겠지, 애들아.

00:08:57.894 --> 00:09:01.563

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
어떤 가치 기준도 없어.

00:09:01.663 --> 00:09:04.758

그게 바로 원초적이야, 원시인들이야
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

00:09:04.858 --> 00:09:08.484

단지 그들은 최소한의
정의 원리 수립을 위해서

00:09:08.584 --> 00:09:12.126

기본적인 태도는 갖고 있지만,
그곳에서 다루어질 일반적인

00:09:12.226 --> 00:09:16.816

계약 내용과 관련된 자기의 특수한
이해 여건은 모르는 것으로

00:09:16.916 --> 00:09:18.180

가정될 뿐이다.

00:09:18.280 --> 00:09:21.399

즉, 계약 당사자 간에 저
사람이 특수한 여건이야,

00:09:21.499 --> 00:09:24.934

재벌집 아들이야, 어디
정치가의 아들이야.

00:09:25.034 --> 00:09:28.419

이런 상황이 철저하게 무시되는
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.

00:09:28.519 --> 00:09:30.838

그래서 심지어 요새는
그런 것도 있잖아요.

00:09:30.938 --> 00:09:33.507

서류 전형이나 이런
거에서 사진을 뺀다든가

00:09:33.607 --> 00:09:36.526

아니면 학력란을 지워버린다든가.

00:09:36.626 --> 00:09:40.882

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소개서와
스펙만을 가지고 따진다거나

00:09:40.982 --> 00:09:43.177

이게 바로 어떤 상황을
만들어 놓는 거냐면

00:09:43.277 --> 00:09:45.688

원초적 상황을 만들어
놓는다는 거예요.

00:09:45.788 --> 00:09:49.528

그게 바로 뭐냐면 계약이
절차적 정의가 되기 위한

00:09:49.628 --> 00:09:51.611

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.

00:09:51.711 --> 00:09:55.467

계약 당사자들은 사회 내에서
자신의 위치를 모르는

00:09:55.567 --> 00:09:57.081

무지의 베일을 쓴 채.

00:09:57.181 --> 00:09:59.207

무지의 베일 중요한 말입니다.

00:09:59.307 --> 00:10:01.712

자신의 위치가 어느
정도인지, 그게 아니고요.

00:10:01.812 --> 00:10:05.074

당사자들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
모르는 무지의 베일을 쓴 채.

00:10:05.174 --> 00:10:10.480

즉,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위치인지
이걸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.

00:10:10.580 --> 00:10:12.652

여기에서 선생님이 앞으로
다시 한번 가볼게요.

00:10:12.752 --> 00:10:17.487

맨 앞에 보면, 맨 첫 번째
줄 보면 정당화될 수 없는

00:10:17.587 --> 00:10:19.510

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.

00:10:19.610 --> 00:10:24.406

자의적이라고 하는 건 임의적인, 우연적
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

00:10:24.506 --> 00:10:29.271

쉽게 말하면 여러분, 평범한
버스 운전기사의 아들인

00:10:29.371 --> 00:10:32.854

김태동이라는 사람하고,
아버지가 운전자 하거든요.

00:10:32.954 --> 00:10:36.626

김태동이라는 사람하고,
그다음에 삼성전자라고 하는

00:10:36.726 --> 00:10:40.212

거대 기업의 아들인
이재용이라고 하는 그 회장하고

00:10:40.312 --> 00:10:42.867

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야
된다는 거예요.

00:10:42.967 --> 00:10:48.108
재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
뭔가 특혜가 더 주어지고,

00:10:48.208 --> 00:10:50.638
운전기사의 아들이기
때문에 특혜가 없고.

00:10:50.738 --> 00:10:52.109
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.

00:10:52.209 --> 00:10:55.760
이런 것들이 바로 원초적 상황에
놓인다는 거고, 무지의 베일.

00:10:55.860 --> 00:10:58.788
즉 무지, 알 수 없다, 베일에
싸여 있다 이런 뜻이죠.

00:10:58.888 --> 00:11:01.563
그걸 모르는 상태에서
계약이 실현되어야

00:11:01.663 --> 00:11:03.706
절차적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.

00:11:03.806 --> 00:11:06.116
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이
아주 중요합니다.

00:11:06.216 --> 00:11:07.761
여기에 적을게요.

00:11:07.861 --> 00:11:12.465
원초적 입장하고 무지의 베일입니다.

00:11:12.565 --> 00:11:14.118
이걸 써야 되는 거죠.

00:11:14.218 --> 00:11:15.325
이쪽으로 올게요.

00:11:15.425 --> 00:11:18.958
순수한 절차적 정의 원리 수립을 위해서
원초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.

00:11:19.058 --> 00:11:21.156
됐습니까?

00:11:21.256 --> 00:11:24.972
이제 무지의 베일을 전제조건으로
정의의 원리가 수립된다면

00:11:25.072 --> 00:11:26.574
그 내용은 어떻게 될까?

00:11:26.674 --> 00:11:29.173
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

방법들이 계속 제시됩니다.

00:11:29.273 --> 00:11:33.440

우선 무지의 배일은 계약
당사자들로 하여금 이기적 근거를

00:11:33.540 --> 00:11:36.524

바탕으로 주장하는 일이
없도록 해줄 것이다.

00:11:36.624 --> 00:11:39.782

무지의 배일이니까 자기가
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

00:11:39.882 --> 00:11:42.836

이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
계약 당사자들로 하여금

00:11:42.936 --> 00:11:46.901

이기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의
입장만 내세울 수 있는,

00:11:47.001 --> 00:11:48.709

주장하는 일이 없도록
해줄 수 있다.

00:11:48.809 --> 00:11:53.493

왜냐하면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
자신들의 이익과 관계가 있는

00:11:53.593 --> 00:11:55.658

지식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.

00:11:55.758 --> 00:11:59.336

즉, 다시 말하면 사회적
지위, 직업이 어떻고,

00:11:59.436 --> 00:12:02.689

이런 어떤 주변의 배경들은
전부 다 모른 상태에서

00:12:02.789 --> 00:12:05.079

계약 당사자가 거래되니까
그러는 거죠.

00:12:05.179 --> 00:12:07.955

우리가 아파트 계약할 때 그
사람이 어디 출신이고,

00:12:08.055 --> 00:12:09.429

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
거 다 필요 없잖아요.

00:12:09.529 --> 00:12:13.630

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
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

00:12:13.730 --> 00:12:15.839

특혜를 준다, 이런 게
없어야 되는 거잖아요.

00:12:15.939 --> 00:12:18.752

그게 바로 무지의
베일이라고 하는 겁니다.

00:12:18.852 --> 00:12:23.796

따라서 원초적 상황에 놓인 어떤
계약자도 자신이 지켜야 할

00:12:23.896 --> 00:12:29.214

특수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으며
개인 내지 일부의 권익 증대를 위해

00:12:29.314 --> 00:12:31.683

연합하려는 욕구도
생기지 않을 것이다.

00:12:31.783 --> 00:12:35.721

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서로
당사자가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.

00:12:35.821 --> 00:12:42.615

그렇다면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
이기주의자로서의 계약자들이 갖는

00:12:42.715 --> 00:12:44.637

기본적인 성향은 어떻게 나타날까?

00:12:44.737 --> 00:12:46.566

어차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
얘기를 했잖아요.

00:12:46.666 --> 00:12:50.210

이기적 인간이라고 하는 걸
인정했으니까 무지의 베일을 썼어요.

00:12:50.310 --> 00:12:52.627

합리적 이기주의자들이야.

00:12:52.727 --> 00:12:54.081

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

00:12:54.181 --> 00:12:58.133

또 그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나타날
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.

00:12:58.233 --> 00:13:01.279

소득 분배의 문제를 한번
생각해 보자, 소득 분배.

00:13:01.379 --> 00:13:03.477

월급 주거나 이런 거라고
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13:03.577 --> 00:13:07.583

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해 어떤
정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

00:13:07.683 --> 00:13:11.756

자신들에게 예상될 수 있는 최하의
위치를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.

00:13:11.856 --> 00:13:15.107

첫 번째, 자신들에게 예상될 수 있는 최하의 위치.

00:13:15.207 --> 00:13:17.951

제일 안 좋은 상황을 보호하는 거죠.

00:13:18.051 --> 00:13:20.729

잘리면 안 되는데,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?

00:13:20.829 --> 00:13:24.410

롤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극소화하려는

00:13:24.510 --> 00:13:26.556

일반 원리를 채택하게 마련이라고 말한다.

00:13:26.656 --> 00:13:27.963

잘리면 안 되잖아요.

00:13:28.063 --> 00:13:31.620

회사 잘리면 안 되는데, 완전히 돈 못 받으면 안 되는데.

00:13:31.720 --> 00:13:32.658

최악의 상황.

00:13:32.758 --> 00:13:35.796

그리하여 계약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리를

00:13:35.896 --> 00:13:39.160

만장일치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.

00:13:39.260 --> 00:13:40.273

그게 뭔데?

00:13:40.373 --> 00:13:46.322

첫째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야, 자유 우선성의 원칙.

00:13:46.422 --> 00:13:52.180

다시,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

00:13:52.280 --> 00:13:54.744

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성향이 나타나냐면

00:13:54.844 --> 00:13:59.071

우선 첫 번째, 자유 우선성의 원칙이 나타난다.

00:13:59.171 --> 00:14:02.266

자유 우선성의 원칙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

00:14:02.366 --> 00:14:06.137

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
범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

00:14:06.237 --> 00:14:09.040

자유에 대한 동등한
권리를 갖게 되는 것.

00:14:09.140 --> 00:14:11.142

서로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겁니다.

00:14:11.242 --> 00:14:15.519

이것은 정치적 자유, 언론과 집회의
자유, 양심과 사상의 자유,

00:14:15.619 --> 00:14:18.574

재산 소유의 자유 등으로 민주
사회의 통념과 일치한다.

00:14:18.674 --> 00:14:20.959

첫 번째, 자유
우선성의 원칙입니다.

00:14:21.059 --> 00:14:23.499

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.

00:14:23.599 --> 00:14:25.092

불평등의 원칙인 거죠.

00:14:25.192 --> 00:14:26.417

차등을 주는 거죠, 뭔데?

00:14:26.517 --> 00:14:30.533

이것은 정당한 불평등의 기준을
밝히기 위한 것이다.

00:14:30.633 --> 00:14:32.635

불평등을 아예 부정하는
거 아닙니다.

00:14:32.735 --> 00:14:35.071

정당한 불평등은 인정하는 거죠.

00:14:35.171 --> 00:14:37.458

정당한 불평등은 인정하는 거예요.

00:14:37.558 --> 00:14:41.564

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든
구성원에게 똑같이 분배한다는

00:14:41.664 --> 00:14:45.069

절대적인 평등은 어느
사회에서도 가능하지도 않으며

00:14:45.169 --> 00:14:46.387

적절한 것도 아니다.

00:14:46.487 --> 00:14:49.263

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
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,

00:14:49.363 --> 00:14:55.399

사회주의가 옛날 냉전 체제의 공산주의가
한쪽 축이 무너진 거잖아요.

00:14:55.499 --> 00:14:57.798

똑같이 분배하는 것을
전제로 했기 때문에.

00:14:57.898 --> 00:15:02.681

그래서 차등의 원칙인데, 차등할
때는 공정성이 기본이겠죠.

00:15:02.781 --> 00:15:06.422

각 개인의 능력이라든가
기여의 차이에 따라 분배는

00:15:06.522 --> 00:15:08.407

달라질 수밖에 없다.

00:15:08.507 --> 00:15:10.893

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
차등의 원칙입니다.

00:15:10.993 --> 00:15:16.267

그러나 불평등은 정당하다고
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

00:15:16.367 --> 00:15:17.618

억제되어야 한다.

00:15:17.718 --> 00:15:19.534

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죠.

00:15:19.634 --> 00:15:21.002

무조건 불평등.

00:15:21.102 --> 00:15:25.072

여자, 힘 약하잖아, 여자가 뭐.

00:15:25.172 --> 00:15:28.429

이런 것들은 정당한
불평등이 아닌 거죠.

00:15:28.529 --> 00:15:32.381

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
대우에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

00:15:32.481 --> 00:15:36.699

차등의 정도가 정당한 정도를
넘어선다는 거예요.

00:15:36.799 --> 00:15:43.231

이런 거죠, 예를
들면 뭐가 있을까요?

00:15:43.331 --> 00:15:51.505

우리 왜 대학 나온
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

00:15:51.605 --> 00:15:56.923

월급의 차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

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

00:15:57.023 --> 00:16:00.474

예를 들면 고등학교만 나온
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

00:16:00.574 --> 00:16:04.723

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조금
덜 받을 수 있지, 뭐.

00:16:04.823 --> 00:16:07.912

아니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
조금 덜 받을 수 있지.

00:16:08.012 --> 00:16:09.459

나는 계약직인데.

00:16:09.559 --> 00:16:12.239

그럴 수는 있지만, 그런
차등은 인정할 수 있죠.

00:16:12.339 --> 00:16:16.001

그러나 두 배 이상 차이난다거나
이런 건 인정 못하는 거 같아요.

00:16:16.101 --> 00:16:17.042

그 말이에요.

00:16:17.142 --> 00:16:24.457

차등의 정도가 정당한 정도를 넘어서니까
차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.

00:16:24.557 --> 00:16:28.633

그러니까 대우의 차등 그 자체를
문제 삼는 건 아닐 거예요.

00:16:28.733 --> 00:16:32.753

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의 현재
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

00:16:32.853 --> 00:16:37.591

차등의 정도가 정당한지 정당하지
않은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.

00:16:37.691 --> 00:16:40.111

그렇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
수 있는 불평등이란

00:16:40.211 --> 00:16:42.245

어떤 원칙에 따른 불평등일까?

00:16:42.345 --> 00:16:44.119

롤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.

00:16:44.219 --> 00:16:46.688

조건이, 불평등의 조건이
두 가지입니다.

00:16:46.788 --> 00:16:50.618

하나를 불평등으로 인해서 그
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

00:16:50.718 --> 00:16:54.905

유리한 결과를 얻으리라고
예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.

00:16:55.005 --> 00:16:58.723

그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유리한
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견되어야 돼.

00:16:58.823 --> 00:17:01.331

내가 이렇게 조금
차등되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

00:17:01.431 --> 00:17:03.545

괜찮을 수 있겠다는
심정이라든가 이런 거겠죠.

00:17:03.645 --> 00:17:08.179

다른 하나는 불평등의
근원이 직위와 직무는

00:17:08.279 --> 00:17:11.476

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
사람에게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.

00:17:11.576 --> 00:17:13.783

즉, 기회균등은 있어야 돼.

00:17:13.883 --> 00:17:17.461

그런데 거기 안에서 능력 차이에
의해서 월급의 차등이 나타나.

00:17:17.561 --> 00:17:18.881

그건 인정한다는 거죠.

00:17:18.981 --> 00:17:24.118

두 가지, 불평등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
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거나

00:17:24.218 --> 00:17:29.223

두 번째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있어서는
열려 있어야 된다, 이런 거죠.

00:17:29.323 --> 00:17:35.174

롤즈는 이런 조건에 충족되어야 불평등이
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.

00:17:35.274 --> 00:17:38.613

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
정리하면 이쪽으로 올까요?

00:17:38.713 --> 00:17:42.637

그래서 계약에서 절차적
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.

00:17:42.737 --> 00:17:43.751

이런 거죠.

00:17:43.851 --> 00:17:51.460

그것들이 지켜지려면 자유의, 이게
읽은 책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.

00:17:51.560 --> 00:17:55.587
앞예를 볼까요?

00:17:55.687 --> 00:17:58.818
자유 우선성의 원칙.

00:17:58.918 --> 00:18:03.623
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.

00:18:03.723 --> 00:18:06.385
이 두 가지인데, 차등의 원칙은
다시 두 가지 있었죠.

00:18:06.485 --> 00:18:11.210
사회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사회
모든 구성원들의 유리한 결과.

00:18:11.310 --> 00:18:20.364
사회 구성원들의 유리한
결과는 인정한다는 거고.

00:18:20.464 --> 00:18:23.302
그다음에 기회균등은 있어야 되죠.

00:18:23.402 --> 00:18:25.892
기회균등은 전제되어야
된다는 얘기에요.

00:18:25.992 --> 00:18:28.659
그래야지만 차등을 인정한다는
거죠, 불평등을.

00:18:28.759 --> 00:18:31.862
여기까지 이제 롤즈의 견해였습니다.

00:18:31.962 --> 00:18:36.248
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지
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.

00:18:36.348 --> 00:18:37.298
정답 볼까요?

00:18:37.398 --> 00:18:39.376
1번, 특정인의 주장이나
견해, 롤즈죠?

00:18:39.476 --> 00:18:41.138
질문하는 형식으로 문단의
화제를 제시했다.

00:18:41.238 --> 00:18:44.558
질문하는 형식이 어디 나왔습니까?

00:18:48.016 --> 00:18:51.012
맨 처음에 어디 나왔죠?

00:18:51.112 --> 00:18:56.344
질문하는 형식으로,
책을 보겠습니다.

00:18:56.444 --> 00:19:00.200

질문하는 형식으로 나오고
있다, 어디 나왔니?

00:19:03.546 --> 00:19:05.725

세 번째 단락에 나왔네요.

00:19:05.825 --> 00:19:07.682

저는 이런 거 잘 못 찾겠어요.

00:19:07.782 --> 00:19:11.166

어떤 절차를 거쳐야 정의를 확립할
수 있을까, 이런 질문이 나왔죠.

00:19:11.266 --> 00:19:12.822

세 번째 단락에.

00:19:12.922 --> 00:19:14.248

세 번째 단락에 나왔네요.

00:19:14.348 --> 00:19:16.486

큰 범주에 들어 있는 하위
요소를 열거하고 있다.

00:19:16.586 --> 00:19:18.924

차등의 법칙에서 두 가지
열거했던 게 있죠.

00:19:19.024 --> 00:19:21.322

적절한 예시도 쓰였습니다.

00:19:21.422 --> 00:19:25.144

유사한 두 현상을 대조해서 그
차이점 나오고 있는 게 없죠.

00:19:25.244 --> 00:19:27.636

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.

00:19:27.736 --> 00:19:29.900

문제는 상당히 쉽네요.

00:19:30.000 --> 00:19:32.288

두 번째 문제, 롤즈가
전제하고 있는 내용과

00:19:32.388 --> 00:19:35.496

거리가 먼 것을
고르라고 얘기했는데.

00:19:35.596 --> 00:19:38.469

롤즈가 전제하고 있는
내용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

00:19:38.569 --> 00:19:41.665

어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
확인하고 있으면 되겠는데요.

00:19:41.765 --> 00:19:42.756

보겠습니다.

00:19:42.856 --> 00:19:44.960

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는
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.

00:19:45.060 --> 00:19:46.428
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.

00:19:46.528 --> 00:19:47.881
존재할 수는 없다,
이렇게 나왔습니다.

00:19:47.981 --> 00:19:52.520
몇 번째 단락에 나왔냐면
1문단과 5문단에 나와 있어요.

00:19:52.620 --> 00:19:54.901
그다음에 자신의 이익을
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다.

00:19:55.001 --> 00:19:56.846
이것도 첫 번째 문단에
있었던 것 같은데?

00:19:56.946 --> 00:19:58.652
두 번째 문단에 있었네요.

00:19:58.752 --> 00:20:02.671
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로
공정성을 포함하는 게 바로 계약이죠.

00:20:02.771 --> 00:20:05.601
계약이 있다는 것 자체가
형식적인 절차상의 공정성을

00:20:05.701 --> 00:20:07.877
떠고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.

00:20:07.977 --> 00:20:09.994
맞아요, 이것도 맞죠?

00:20:10.094 --> 00:20:13.734
정의로운 절차를 거친 행위는
늘 정의로운 결과, 아니죠.

00:20:13.834 --> 00:20:15.693
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.

00:20:15.793 --> 00:20:18.966
늘 정의로운 결과를
가져다주는 건 안 되겠죠.

00:20:19.066 --> 00:20:22.578
정의로운 절차를 거치더라도,
즉 다시 말하면 별개라고

00:20:22.678 --> 00:20:25.798
생각했다는 거니까 정의로운 절차가
있더라도 정의로운 결과.

00:20:25.898 --> 00:20:28.493
아까 추첨의 예시가 나왔었잖아요.

00:20:28.593 --> 00:20:32.559
추첨은 당첨되는 사람과 당첨되지 않은
사람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.

00:20:32.659 --> 00:20:35.543
특수한 여건은 계약에 어떤
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

00:20:35.643 --> 00:20:38.630
무지의 베일이 필요하다고
얘기했습니다.

00:20:38.730 --> 00:20:40.275
정답은 4번 정답이죠.

00:20:40.375 --> 00:20:42.328
롤즈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

00:20:42.428 --> 00:20:44.534
가장 적절한 것을
찾으라고 얘기했는데.

00:20:44.634 --> 00:20:50.896
정답을 확인하시면 정답은
2번이 정답입니다.

00:20:50.996 --> 00:20:54.614
2번은 여기에서는 불평등을 어느
정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,

00:20:54.714 --> 00:20:56.138
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

00:20:56.238 --> 00:20:59.396
차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
내용도 나와 있고,

00:20:59.496 --> 00:21:03.071
자유 우선성의 원칙이라고
하는 것도 나와 있었죠.

00:21:03.171 --> 00:21:06.250
정답 몇 번이냐면
정의로운 복지 공동체,

00:21:06.350 --> 00:21:08.615
복지라고 하는 게
분배의 문제잖아요.

00:21:08.715 --> 00:21:12.082
분배의 문제를 정당하게,
정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

00:21:12.182 --> 00:21:14.891
어떤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되느냐?

00:21:14.991 --> 00:21:18.539
이런 이런 불평등을 하면 안 된다는
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.

00:21:18.639 --> 00:21:21.395

그래야지만 복지 공동체가
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

00:21:21.495 --> 00:21:23.230
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21:23.330 --> 00:21:26.945
사회 구성원들이
노력하는 것이 아니라,

00:21:27.045 --> 00:21:29.649
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을
얘기하는 것이 아니라

00:21:29.749 --> 00:21:33.066
국가가,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
절차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니까

00:21:33.166 --> 00:21:34.568
1번은 안 되겠죠.

00:21:34.668 --> 00:21:37.234
더 많은 재화와 분배
구조, 아니고.

00:21:37.334 --> 00:21:39.416
평등하게 살아가도록
만들기 위해서 정부가.

00:21:39.516 --> 00:21:40.934
모두 평등하게 아니죠.

00:21:41.034 --> 00:21:43.439
모두 평등한 게 아니라 불평등도
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.

00:21:43.539 --> 00:21:47.511
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분배 체계가
아니라 불평등이라고 하는 걸

00:21:47.611 --> 00:21:50.894
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
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

00:21:50.994 --> 00:21:54.207
얘기한 거니까 정답은
2번이 정답이 되겠죠.

00:21:54.307 --> 00:21:55.531
4번 보겠습니다.

00:21:55.631 --> 00:21:58.467
윗글의 폴즈와 보기의 노직을 비교한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21:58.567 --> 00:22:01.818
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견해를
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겠네요.

00:22:01.918 --> 00:22:03.975
자유주의자를 대표하는 노직입니다.

00:22:04.075 --> 00:22:06.054

개인의 자유가 인정되어야
된다는 거죠.

00:22:06.154 --> 00:22:08.818

국가 또는 어떤 집단에
의한 임의적이고 계획적이고

00:22:08.918 --> 00:22:12.963

인위적인 경제적 재분배
방식을 반대한다.

00:22:13.063 --> 00:22:15.943

국가 개입하지 마, 국가 너희가
아무것도 안 해도 돼, 이런 거예요.

00:22:16.043 --> 00:22:21.036

정형적 공식에 의한 분배적 정의의
원리는 아무리 공익의 명분으로

00:22:21.136 --> 00:22:23.676

수행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
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.

00:22:23.776 --> 00:22:26.559

개인의 삶을 부당하게
간섭한다고 보았다.

00:22:26.659 --> 00:22:29.168

공식에 의한 분배적 정의는
안 된다, 이런 거죠.

00:22:29.268 --> 00:22:32.069

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
위해 5시간 노동 가치만큼

00:22:32.169 --> 00:22:35.333

세금을 징수한다면 그것은 그
사람에게 5시간 강제 노동을

00:22:35.433 --> 00:22:36.527

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.

00:22:36.627 --> 00:22:37.981

그냥 내버려둬라, 이런 거야.

00:22:38.081 --> 00:22:40.782

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
내버려둬라 이런 뜻이겠죠.

00:22:40.882 --> 00:22:43.985

어떤 정의의 이론으로도 합리화할 수
없는 부정의한 일이라고 주장한다.

00:22:44.085 --> 00:22:47.632

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을
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

00:22:47.732 --> 00:22:48.967

인정하지 않습니다.

00:22:49.067 --> 00:22:50.389

개인이 결정하는 거죠.

00:22:50.489 --> 00:22:52.068

개인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.

00:22:52.168 --> 00:22:54.477

내가 세금 내기 위해서
5시간 일하는 건

00:22:54.577 --> 00:22:56.433

이건 부당하다, 이렇게
보는 거예요.

00:22:56.533 --> 00:22:59.563

상호 자유로운 가치 교환이
발생한 자체가 자연적 가치의

00:22:59.663 --> 00:23:01.212

등가적 교환이 이루어졌다.

00:23:01.312 --> 00:23:04.632

등가적은 똑같은 값어치로 교환이
되었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

00:23:04.732 --> 00:23:06.291

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3:06.391 --> 00:23:07.980

적절하지 않은 거죠.

00:23:08.080 --> 00:23:11.898

1번, 롤즈나 노직은 불평등한 차별을
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.

00:23:11.998 --> 00:23:15.161

불평등한 차별을 인정하고
있다는 얘기는 뭐냐면

00:23:15.261 --> 00:23:17.339

롤즈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.

00:23:17.439 --> 00:23:21.416

롤즈라는 사람은 차별이 있을 수
있다는 거잖아요, 그렇죠?

00:23:21.516 --> 00:23:23.719

불평등이라고 하는 걸
인정하고 있습니다.

00:23:23.819 --> 00:23:25.540

다만 절차적 정의만 인정된다면.

00:23:25.640 --> 00:23:31.122

노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
그렇게 가난한 건 당연한 거다,

00:23:31.222 --> 00:23:34.181

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
불평등하게 차별할 수 있다.

00:23:34.281 --> 00:23:35.229

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

00:23:35.329 --> 00:23:37.707

그냥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된다,
이런 거니까 불평등한 차별을

00:23:37.807 --> 00:23:40.301

인정하고 있다 이렇게
보시면 되겠죠.

00:23:40.401 --> 00:23:41.862

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.

00:23:41.962 --> 00:23:44.379

시장의 기능을 더 중요하게
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까요?

00:23:44.479 --> 00:23:45.599

노직이겠죠.

00:23:45.699 --> 00:23:48.127

노직은 시장에 맡겨라 이런 거죠.

00:23:48.227 --> 00:23:50.860

롤즈는 공익이 더
중시되는 사람이겠죠.

00:23:50.960 --> 00:23:53.543

노직은 롤즈와 달리 노동
가치의 인위적 평가를

00:23:53.643 --> 00:23:55.172

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.

00:23:55.272 --> 00:23:57.963

노직은 롤즈의 정의론과 같은 원리가
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.

00:23:58.063 --> 00:23:59.201

당연하죠.

00:23:59.301 --> 00:24:02.198

노직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
개인주의자, 자유주의자니까요.

00:24:02.298 --> 00:24:04.717

개인의 자유만 무한히
보장을 해줘야 된다

00:24:04.817 --> 00:24:06.351

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

00:24:06.451 --> 00:24:07.483

5번 보겠습니다.

00:24:07.583 --> 00:24:11.050

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
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24:11.150 --> 00:24:14.764
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
세운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.

00:24:14.864 --> 00:24:17.766
회사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은
자신들 중에서 적임자를 뽑아

00:24:17.866 --> 00:24:21.033
사장, 부장, 과장의
직위를 맡게 하고.

00:24:21.133 --> 00:24:22.545
적임자를 뽑는 거예요.

00:24:22.645 --> 00:24:26.091
나머지는 사원으로
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
00:24:26.191 --> 00:24:27.714
계약을 했다는 뜻이겠죠.

00:24:27.814 --> 00:24:31.171
그리고 월급은 직급에 따라
다르게 하되 직급이 높을수록

00:24:31.271 --> 00:24:33.083
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00:24:33.183 --> 00:24:35.546
적절하지 않은 것을
고르라고 했습니다.

00:24:35.646 --> 00:24:42.035
구성원들은 자신이 사원의 신분이
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서

00:24:42.135 --> 00:24:45.117
각 직급의 월급을 결정한다,
이게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.

00:24:45.217 --> 00:24:48.571
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,
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

00:24:48.671 --> 00:24:50.767
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

00:24:50.867 --> 00:24:52.774
그 계약서를 만들어낼
수 있다는 겁니다.

00:24:52.874 --> 00:24:57.115
내가 이미 사원이었다면 그 계약은
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.

00:24:57.215 --> 00:24:59.601
그러니까 적절한 거,
1번 적절하네요.

00:24:59.701 --> 00:25:04.220

2번 보면 구성원들 중 일부는
자신과, 말도 안 되네요.

00:25:04.320 --> 00:25:06.686

자신과 친한 사람들과
연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

00:25:06.786 --> 00:25:08.045

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.

00:25:08.145 --> 00:25:10.824

이거는 절차적 정의가
인정되지 않는 거잖아요.

00:25:10.924 --> 00:25:14.607

구성원들이 현재 누구도 어떤 직급에
갈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야지만

00:25:14.707 --> 00:25:17.263

원초적 상태, 정의의 원리에
맞는 체도를 만들 수 있다.

00:25:17.363 --> 00:25:18.323

맞고요.

00:25:18.423 --> 00:25:20.843

자신의 능력이나 기여에 따라 어떤
직급에도 갈 수 있다고 판단할 때,

00:25:20.943 --> 00:25:22.629

똑같은 말입니다, 공정하다.

00:25:22.729 --> 00:25:25.781

구성원들의 직급에 따라 월급의
차이를 두는 것을 정당하게

00:25:25.881 --> 00:25:29.170

받아들이는 경우는 모두에게
이익이 된다는 생각할 경우니까

00:25:29.270 --> 00:25:30.529

이것도 역시 가능하죠.

00:25:30.629 --> 00:25:33.116

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

00:25:33.216 --> 00:25:35.477

그럼 이거는 불평등을
인정하는 거예요.

00:25:35.577 --> 00:25:38.791

원초적 상태에서 무지의 베일
상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.

00:25:38.891 --> 00:25:43.032

㉠~㉡을 이용하여 만든 문장으로
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.

00:25:43.132 --> 00:25:44.338

답만 확인해 보겠습니다.

00:25:44.438 --> 00:25:45.402
5번이 정답인데요.

00:25:45.502 --> 00:25:49.591
㉠은 뭐냐면 불평등으로
인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

00:25:49.691 --> 00:25:54.500
유리한 결과를 얻으리라고
예견되어야 된다고 했는데.

00:25:54.600 --> 00:25:59.626
추측하다, 뭐 이렇게
나타나면 되겠죠.

00:25:59.726 --> 00:26:03.468
그런데 예견된다고 하는 것은
뭐냐면 홍수가 발생하여

00:26:03.568 --> 00:26:05.343
많은 피해를 낸 것으로 예견된다.

00:26:05.443 --> 00:26:06.873
이거는 왜 틀렸냐면요.

00:26:06.973 --> 00:26:09.567
예 자가 미리 예 자야, 미리.

00:26:09.667 --> 00:26:12.042
미리 나타나서 본다,
이런 뜻이거든요.

00:26:12.142 --> 00:26:14.374
그런데 이미 홍수가 발생했으니까요.

00:26:14.474 --> 00:26:18.763
이건 과거 사건이니까
예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.

00:26:18.863 --> 00:26:19.840
참 문제 어렵습니다.

00:26:19.940 --> 00:26:21.756
예견한다는 것은.

00:26:21.856 --> 00:26:25.354
그럼 여기에서는 뭐냐면 홍수가
발생하여 많은 피해를

00:26:25.454 --> 00:26:28.971
낸 것으로 추측이나
이건 가능할 수 있죠.

00:26:29.071 --> 00:26:33.714
그런데 예견된다고 하면 미리 예
자,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

00:26:33.814 --> 00:26:37.080
바라보고 있는 거니까, 미래 상황의
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

00:26:37.180 --> 00:26:40.179

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.

00:26:40.279 --> 00:26:42.732

그래서 5번이 안 되겠죠.

00:26:42.832 --> 00:26:43.601

됐습니까?

00:26:43.701 --> 00:26:46.465

칠판 정리하고 다음
지문 넘어가겠습니다.

00:26:46.565 --> 00:26:48.169

여러분, 다음 지문 넘어가겠습니다.

00:26:48.269 --> 00:26:49.535

알고리즘 문제인데요.

00:26:49.635 --> 00:26:51.126

문제를 먼저 가볼게요.

00:26:51.226 --> 00:26:53.707

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
것,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.

00:26:53.807 --> 00:26:56.946

그다음에 2번 보면 [A]에 대한
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.

00:26:57.046 --> 00:27:00.258

앞에 [A] 부분을 보고 나서 문제
바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00:27:00.358 --> 00:27:03.085

㉠, ㉡에 대한 설명으로
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.

00:27:03.185 --> 00:27:05.475

자동차 공정의 예, 컴퓨터가
1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

00:27:05.575 --> 00:27:09.717

각자가 낸 세금이 전체 세금 중
몇%를 차지하는지 계산하는

00:27:09.817 --> 00:27:11.387

두 가지 작업의 예를 한번 보자.

00:27:11.487 --> 00:27:13.965

예시를 통해서 이해하는
게 좋을 것 같습니다.

00:27:14.065 --> 00:27:16.460

4번을 보면 ㉠에 대해
탐구한 학습이다.

00:27:16.560 --> 00:27:19.460

(ㄱ)에 들어갈 수의 배열이
바르게 된 것으이라고 해서

00:27:19.560 --> 00:27:21.744

그 앞에 알고리즘을 통해서
수 배열하는 건데

00:27:21.844 --> 00:27:23.284

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.

00:27:23.384 --> 00:27:27.750

5번, ㉠에 해당하는 시간을 빠르게
계산한 것을 찾아보라고 얘기했네요.

00:27:27.850 --> 00:27:29.031

가볼까요?

00:27:29.131 --> 00:27:31.464

컴퓨터가 어떤 일을
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

00:27:31.564 --> 00:27:32.801

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.

00:27:32.901 --> 00:27:36.448

그 첫째는 컴퓨터가
수행할 문제에 대해서

00:27:36.548 --> 00:27:38.387

정의하고 분석하는
과정이 있어야 돼요.

00:27:38.487 --> 00:27:42.982

어떤 문제인지 그걸 정의해야
되고, 분석하는 과정이에요.

00:27:43.082 --> 00:27:45.979

다음으로는 그 분석 결과를
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

00:27:46.079 --> 00:27:49.445

단계별 풀이 과정을
고안해야 되는데.

00:27:49.545 --> 00:27:51.476

이걸 뭐라고 하냐면 알고리즘이에요.

00:27:51.576 --> 00:27:53.700

알고리즘은 어떤 단계를
설정해주는 거죠.

00:27:53.800 --> 00:27:55.234

단계를 만들어내는 거다,
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

00:27:55.334 --> 00:27:59.593

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로
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가

00:27:59.693 --> 00:28:04.846

바로 알고리즘인데, 알고리즘을
만들고 나면 이를 컴퓨터가

00:28:04.946 --> 00:28:08.193

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.

00:28:08.293 --> 00:28:10.926
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.

00:28:11.026 --> 00:28:15.914
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문제 상황이 뭐냐,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.

00:28:16.014 --> 00:28:17.177
가볼까요?

00:28:17.277 --> 00:28:19.448
정의하고 분석해야죠.

00:28:19.548 --> 00:28:22.896
그다음에 뭘 만드냐면 알고리즘을 만들어요.

00:28:22.996 --> 00:28:24.977
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?

00:28:25.077 --> 00:28:29.592
단계적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

00:28:29.692 --> 00:28:35.956
단계적 풀이 과정을 고안해내야 돼, 만들어내야 되고요.

00:28:36.056 --> 00:28:41.278
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뭐로 만드냐면 컴퓨터 언어로 바꿔줘야죠.

00:28:41.378 --> 00:28:44.545
컴퓨터 언어로 바꾸는 것을 프로그래밍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28:44.645 --> 00:28:45.708
이쪽으로 올게.

00:28:45.808 --> 00:28:49.224
컴퓨터 작업에서 프로그래밍이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과

00:28:49.324 --> 00:28:53.557
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코딩 과정을 얘기한다.

00:28:53.657 --> 00:28:54.805
이거네요.

00:28:54.905 --> 00:28:59.126
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, 첫 번째.

00:28:59.226 --> 00:29:01.260
이게 설계하는 과정 첫 번째.

00:29:01.360 --> 00:29:05.080

그다음에 컴퓨터 언어로
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.

00:29:05.180 --> 00:29:08.203

이게 바로 뭐냐면
코딩이라는 과정입니다.

00:29:08.303 --> 00:29:10.185

요새 코딩 붐이
일어나고 이러던데요.

00:29:10.285 --> 00:29:14.211

알고리즘 작성은 문제 해결책을
얻는 과정이며 코딩이란

00:29:14.311 --> 00:29:16.567

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
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

00:29:16.667 --> 00:29:18.511

단순한 과정입니다.

00:29:18.611 --> 00:29:22.669

컴퓨터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바로
코딩이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29:22.769 --> 00:29:24.972

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.

00:29:25.072 --> 00:29:26.705

그럼 한번 보겠습니다.

00:29:26.805 --> 00:29:28.721

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.

00:29:28.821 --> 00:29:33.842

알고리즘에는 데이터를 일정한
규칙에 따라 재배열하는

00:29:33.942 --> 00:29:38.238

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
게 있습니다, 종류별로.

00:29:38.338 --> 00:29:43.232

그다음에 기억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나
주어진 입력 데이터 집합에서

00:29:43.332 --> 00:29:46.866

어떤 조건이나 성질을 만족하는
데이터를 찾아내는, 어렵지 않네요.

00:29:46.966 --> 00:29:49.624

탐색 알고리즘이라고
하는 게 있고요.

00:29:49.724 --> 00:29:55.021

임의의 함수가 자신을 다시
호출하는 재귀호출 알고리즘입니다.

00:29:55.121 --> 00:29:56.168

이게 무슨 얘기야?

00:29:56.268 --> 00:30:00.221

어떤 함수가 있는데, 임의
함수가 있는데 자신을 다시

00:30:00.321 --> 00:30:04.183

이 함수를 계속 활용해라,
계속 활용해라 이런 게

00:30:04.283 --> 00:30:06.264

바로 재귀호출 알고리즘이에요.

00:30:06.364 --> 00:30:09.200

정렬 알고리즘에는, 아까
정렬 알고리즘 있었죠?

00:30:09.300 --> 00:30:15.428

선택 정렬, 삽입 정렬, 버블 정렬
등이 있으며, 종류별로 설명했네요.

00:30:15.528 --> 00:30:20.475

탐색 알고리즘에는 선형 탐색,
이진 탐색 등이 있고.

00:30:20.575 --> 00:30:22.439

이거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, 설마?

00:30:22.539 --> 00:30:26.027

재귀호출에는 피보나치 수열과
하노이 탑 등이 있다.

00:30:26.127 --> 00:30:27.638

어렵다, 그렇죠?

00:30:27.738 --> 00:30:30.151

이런 이런 종류들이 있다,
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

00:30:30.251 --> 00:30:31.645

[A] 부분을 한번 볼까요?

00:30:31.745 --> 00:30:36.171

[A] 부분을 보시면 [A]에 대한
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.

00:30:36.271 --> 00:30:38.149

정답은 5번이 정답이겠네요.

00:30:38.249 --> 00:30:39.182

너무 쉽습니다.

00:30:39.282 --> 00:30:41.185

대상들의 의미와
대상들의 하위 요소.

00:30:41.285 --> 00:30:43.967

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종류가 있고,
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종류가 있다.

00:30:44.067 --> 00:30:45.769

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.

00:30:45.869 --> 00:30:47.759

2번 문제 바로 해결했습니다.

00:30:47.859 --> 00:30:49.276

다음 넘어갈까요?

00:30:49.376 --> 00:30:54.344

컴퓨터의 기억 용량과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서

00:30:54.444 --> 00:30:56.989

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따라

00:30:57.089 --> 00:30:59.443

처리 속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, 그렇지요?

00:30:59.543 --> 00:31:01.950

그래서 막 높은 사양을 찾고 이러잖아요.

00:31:02.050 --> 00:31:05.397

컴퓨터 명령들의 조합을 결정하는 일은 알고리즘의 작성에서

00:31:05.497 --> 00:31:09.120

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그램의 성능은 어떤 알고리즘을

00:31:09.220 --> 00:31:10.538

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.

00:31:10.638 --> 00:31:15.139

즉,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 단순화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고,

00:31:15.239 --> 00:31:18.417

알고리즘이 복잡해 그러면 늦게 처리되고 이런 거죠.

00:31:18.517 --> 00:31:23.383

물론 뭐 제일 빨리하는 건 컴퓨터 성능을 제일 좋게 하는 방법이겠지만.

00:31:23.483 --> 00:31:26.578

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언어를 다루는 기술도

00:31:26.678 --> 00:31:28.307

중요하지만, 코딩이라고 했죠?

00:31:28.407 --> 00:31:32.070

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선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.

00:31:32.170 --> 00:31:36.179

컴퓨터는 동일한 작업을 천문학적 횟수만큼 반복하는 일이 많으므로,

00:31:36.279 --> 00:31:39.506

계속 반복하면서 그 데이터를
만들어내는 거잖아요.

00:31:39.606 --> 00:31:42.216

반복 횟수를 줄이거나,
어떻게 해요?

00:31:42.316 --> 00:31:45.979

반복 횟수를 줄이거나 작업량을
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,

00:31:46.079 --> 00:31:48.767

이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은
컴퓨터의 세계뿐만 아니라

00:31:48.867 --> 00:31:50.171

현실 세계에서든 중요하다.

00:31:50.271 --> 00:31:51.936

즉,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야 돼?

00:31:52.036 --> 00:31:59.100

반복 횟수를 줄이거나, 반복 횟수를
줄이거나 작업의 양을 줄이면

00:31:59.200 --> 00:32:01.760

좀 더 효과적이다,
이렇게 얘기합니다.

00:32:01.860 --> 00:32:03.840

좀 더 효과적이다, 됐어요.

00:32:03.940 --> 00:32:05.205

넘어갈게요.

00:32:05.305 --> 00:32:08.404

자동차 공정을 예로
한번 들어 봅시다.

00:32:08.504 --> 00:32:11.035

자동차 공정을 예로 한번
들어 보는 겁니다.

00:32:11.135 --> 00:32:12.913

가볼게요.

00:32:13.013 --> 00:32:16.202

한 대의 자동차를 완성하기
위해서는 수천 개의 부품이

00:32:16.302 --> 00:32:17.266

조립되어야 되죠.

00:32:17.366 --> 00:32:20.871

여러 사람이 수천 개의
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에는

00:32:20.971 --> 00:32:22.566

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.

00:32:22.666 --> 00:32:26.118

하나는, 이게 알고리즘을
만드는 거예요.

00:32:26.218 --> 00:32:29.328

각자가 자기가 맡은
부품만을 조립하여

00:32:29.428 --> 00:32:31.759

여러 명이 한 대를
조립하는 방법이다.

00:32:31.859 --> 00:32:33.747

이게 첫 번째 알고리즘이에요.

00:32:33.847 --> 00:32:38.448

다른 하나는 각자가 처음부터 수천
가지 부품을 하나씩 조립해서

00:32:38.548 --> 00:32:40.219

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방법이다.

00:32:40.319 --> 00:32:41.322

그러니까 뭔지 알겠죠?

00:32:41.422 --> 00:32:44.664

여러 사람이 여러 개의 부품을
나눠서 이것만 하는 거죠.

00:32:44.764 --> 00:32:46.236

단순히 이것만 하는 거고.

00:32:46.336 --> 00:32:50.173

두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이 이거,
이거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

00:32:50.273 --> 00:32:52.269

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.

00:32:52.369 --> 00:32:53.557

알고리즘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.

00:32:53.657 --> 00:32:58.800

이 두 방법 중에서 전자는
알고리즘에 변화를 주어

00:32:58.900 --> 00:33:00.964

생산성에 혁신을 가져온 방법이야.

00:33:01.064 --> 00:33:03.469

그러니까 첫 번째 훨씬 더
생산성이 많은 거죠.

00:33:03.569 --> 00:33:05.480

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.

00:33:05.580 --> 00:33:08.473

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 인간은
단순 노동에 그치죠.

00:33:08.573 --> 00:33:11.165

이것도 점점 기계화되니까
일자리도 잃어가.

00:33:11.265 --> 00:33:13.868

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
함으로써 후자에 비해서

00:33:13.968 --> 00:33:17.007

작업이 손에 익숙해지고 단위
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여

00:33:17.107 --> 00:33:21.717

결국 전체적인 생산 향상을 가져오는
게 바로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

00:33:21.817 --> 00:33:25.354

첫 번째 알고리즘의 효과였습니다.

00:33:25.454 --> 00:33:29.377

그러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실행에

00:33:29.477 --> 00:33:33.980

큰 영향을 미칠 수
있다고 얘기했는데.

00:33:34.080 --> 00:33:38.241

컴퓨터가 1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,
100만 명이니까 엄청나잖아요.

00:33:38.341 --> 00:33:40.568

그러니까 프로그램이
계속 돌아가야 돼.

00:33:40.668 --> 00:33:44.546

1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
그들 각자가 낸 세금이

00:33:44.646 --> 00:33:49.074

한 사람은 100만 원 냈어, 한 사람은
10만 원 냈어, 20만 원 냈어,

00:33:49.174 --> 00:33:50.248

이런 거잖아요.

00:33:50.348 --> 00:33:54.436

전체 세금 중에서 몇%를
차지하는지를 계산하는

00:33:54.536 --> 00:33:56.405

두 가지 작업의 예를 보자.

00:33:56.505 --> 00:33:57.880

첫 번째 다시.

00:33:57.980 --> 00:34:02.975

각자가 낸 세금이 전체 세금 중에
몇%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.

00:34:03.075 --> 00:34:06.505

그 두 가지 작업 방식이 있대요.

00:34:06.605 --> 00:34:10.045

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잘할
것 같은데, 그렇죠?

00:34:10.145 --> 00:34:13.329

전체 세금이 만약에 100억이에요.

00:34:13.429 --> 00:34:17.688

어떤 사람의 납세액이 1억이라면
그 사람은 전체 세금 중에

00:34:17.788 --> 00:34:19.551

1%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것이다.

00:34:19.651 --> 00:34:23.522

그것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단순하게
만들면 다음처럼 만들 수 있다.

00:34:23.622 --> 00:34:24.670

간단하죠, 봐.

00:34:24.770 --> 00:34:28.513

100만 명의 납세액을
전부 다 입력받아요.

00:34:28.613 --> 00:34:31.912

다 100만 명이 다
입력되어야 되죠.

00:34:32.012 --> 00:34:34.432

대상자의 납세액을 읽어 와.

00:34:34.532 --> 00:34:35.840

대상자의 납세액이 얼마인데?

00:34:35.940 --> 00:34:37.046

1억이었잖아요.

00:34:37.146 --> 00:34:38.484

1억을 읽어 와요.

00:34:38.584 --> 00:34:41.004

100만 명의 납세액의
총합을 계산하죠.

00:34:41.104 --> 00:34:44.730

이게 전부 다 납세액을 입력받은
다음에 납세액을 읽어 오고

00:34:44.830 --> 00:34:45.887

총 합이 얼마야?

00:34:45.987 --> 00:34:51.157

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계산이
됐어요, 전체 세금이, 납세액이.

00:34:51.257 --> 00:34:55.611

2의 값을 총합으로 나누어서,
1억을 100억으로 나누어서

00:34:55.711 --> 00:34:57.374

납세 비중을 계산한다.

00:34:57.474 --> 00:34:58.564
될까요?

00:34:58.664 --> 00:35:02.333
그래서 1%쥬, 1% 이렇게
계산을 하는 거쥬.

00:35:02.433 --> 00:35:08.500
나머지 대상자들도 2~4의
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쥬.

00:35:08.600 --> 00:35:11.123
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은 이거밖에
없는데, 또 단순한 게 있나 봐.

00:35:11.223 --> 00:35:16.385
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 100만
명이 각자 몇 %에 해당하는지를

00:35:16.485 --> 00:35:18.172
전부 다 계산해낼 수
있는 거쥬아쥬.

00:35:18.272 --> 00:35:21.410
이게 바로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.

00:35:21.510 --> 00:35:24.632
이런 알고리즘을 실제로
프로그램으로 옮겼을 때

00:35:24.732 --> 00:35:26.019
실행 시간은 얼마나 될까?

00:35:26.119 --> 00:35:29.394
만일 단계 1에서 1초가
걸리고, 계산해 볼까요?

00:35:29.494 --> 00:35:33.551
단계 1에서 1초가 걸리고, 단계
2에서는 한 사람의 납세액을

00:35:33.651 --> 00:35:38.070
읽어 오는 데 100만
분의 1초, 맞나?

00:35:38.170 --> 00:35:39.542
100만 분의 1초.

00:35:39.642 --> 00:35:43.348
단계 3에서는 두 수를 더하는
데 100만 분의 1초.

00:35:43.448 --> 00:35:47.140
단계 4에서 두 수를 나누는 데
100만 분의 1초가 걸린다고 가정하면

00:35:47.240 --> 00:35:53.802
납세자 1명의 세 비중을 계산하는
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

00:35:53.902 --> 00:35:58.186

단계 2의 소요 시간은 100만
분의 1초죠, 100만 분의 1초.

00:35:58.286 --> 00:36:00.802

대상자의 납세액을 읽어 오는 게
100만 분의 1초였어요.

00:36:00.902 --> 00:36:06.010

단계 3의 소요 시간은,
단계 3이 뭐였지?

00:36:06.110 --> 00:36:10.530

단계 2에서 한 사람을 읽어
오는 데 100만 분의 1초,

00:36:10.630 --> 00:36:13.390

단계 3에서는 두 수를 더하는
데 100만 분의 1초.

00:36:13.490 --> 00:36:18.599

단계 3의 소요 시간은 바로
뭐냐면, 단계 3이 뭐였냐면

00:36:18.699 --> 00:36:22.972

100만 명의 납세액을 가져오는 시간+모두
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.

00:36:23.072 --> 00:36:28.412

그러니까 100만 분의 1초가
걸리는데, 100만 명 거니까

00:36:28.512 --> 00:36:30.159

100만 곱해야 되죠, 맞아요?

00:36:30.259 --> 00:36:37.733

그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모두
더하는데, 100만 분의 1초,

00:36:37.833 --> 00:36:40.200

그다음에 100만-1을
해야죠, 왜?

00:36:40.300 --> 00:36:41.423

한 사람 거는 이미 해봤으니까.

00:36:41.523 --> 00:36:49.427

그러니까 1초에다 1초-100만
분의 1초 이렇게 되는 거야.

00:36:49.527 --> 00:36:52.472

단계 3의 소요 시간이 어떤
건지 알겠니, 애들아?

00:36:52.572 --> 00:37:00.193

단계 4의 소요 시간은 뭐냐면, 단계
4는 뭐였냐면 100만 분의 1초였어요.

00:37:00.293 --> 00:37:05.180

단계 4가 뭐였냐면 두 수를 나누는

데 100만 분의 1초네요.

00:37:05.280 --> 00:37:06.605
나누는 건 그냥 간단하게 걸리니까.

00:37:06.705 --> 00:37:08.558
이게 단계 3이 많이
걸리는구나, 그렇지?

00:37:08.658 --> 00:37:14.467
단계 3이 많이 걸리는 건 각자의
것을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.

00:37:14.567 --> 00:37:17.528
그러니까 단계 2, 3,
4의 소요 시간 총합을 보면

00:37:17.628 --> 00:37:26.201
100만 분의 1초+2초-100만 분의
1초, 그다음에 100만 분의 1초니까

00:37:26.301 --> 00:37:29.889
2초+100만 분의
1초 이렇게 되겠죠.

00:37:29.989 --> 00:37:33.160
복잡해 보이지만, 복잡하지 않아요.

00:37:33.260 --> 00:37:37.435
그러니까 아까 앞에 알고리즘을
실제로 실행했을 때

00:37:37.535 --> 00:37:40.007
걸리는 시간이다, 이렇게
생각하면 되겠죠.

00:37:40.107 --> 00:37:44.042
그럼 2초+100만 분의
1초 이렇게 되겠네요.

00:37:44.142 --> 00:37:50.206
그러면 100만 명의 세 부담률을
계산하려면 이 과정을 100만 번

00:37:50.306 --> 00:37:53.636
반복해야 하므로 2~5 과정에
필요한 프로그램 실행 시간은

00:37:53.736 --> 00:38:01.963
200만 1초가 걸리며 단계 1까지 하면
200만 2초, 곧 555시간이 걸린다.

00:38:02.063 --> 00:38:04.990
이거 다 계산하면 555시간이
걸린다는 거예요.

00:38:05.090 --> 00:38:08.665
컴퓨터로 이렇게 계산하면
555시간이 걸리는 거죠.

00:38:08.765 --> 00:38:10.646

그 알고리즘대로 계산을
하면, 이해되니?

00:38:10.746 --> 00:38:13.600

그러면 알고리즘을 바꾸면
어떻게 될까, 바꾸면?

00:38:13.700 --> 00:38:15.617

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
00:38:15.717 --> 00:38:17.942

첫 번째 알고리즘 말고
다른 알고리즘을 하면.

00:38:18.042 --> 00:38:23.852

위의 알고리즘은 3단계에서 100만
명의 납세액 총합을 계산한다라고

00:38:23.952 --> 00:38:30.216

썸으로써 실제 코딩 단계에서 100만
명의 납세 총액을 구했지만,

00:38:30.316 --> 00:38:36.142

이 알고리즘을 바꿔서 100만 명의
납세 총액을 계속 구하는 것이 아니라

00:38:36.242 --> 00:38:40.811

이미 하나 구해 놓고, 그다음부터는
그 구한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.

00:38:40.911 --> 00:38:44.645

구한 값을 이용하도록 하면
시간을 줄일 수 있죠.

00:38:44.745 --> 00:38:45.661

무슨 얘기냐?

00:38:45.761 --> 00:38:50.394

아까 단계 3에서 100만 명의
납세액의 총액을 계산한다고 했을 때

00:38:50.494 --> 00:38:53.337

첫 번째 계산을 해놨잖아.

00:38:53.437 --> 00:38:55.549

그러면 그 값을 그대로
이용하는 거죠.

00:38:55.649 --> 00:38:59.253

그런데 지금 두 번째 알고리즘
계산하니까 단계 3의 소요 시간을

00:38:59.353 --> 00:39:04.237

계속 시간을 재는 거잖아요,
계속 시간을 더하는 거잖아.

00:39:04.337 --> 00:39:08.432

계속 납세액의 총합을 계속하잖아요,
그걸 줄이는 거죠.

00:39:08.532 --> 00:39:14.133

아예 하나 구해놓고 그 값만
계속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.

00:39:14.233 --> 00:39:15.605
이해가 되실까요?

00:39:15.705 --> 00:39:17.826
그러면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.

00:39:17.926 --> 00:39:20.728
즉, 다시 보세요.

00:39:20.828 --> 00:39:25.096
100만 명의 납세액을 입력받아요.

00:39:25.196 --> 00:39:27.296
입력받죠.

00:39:27.396 --> 00:39:32.058
그다음에 100만 명의 납세액의
총합을 계산한다, 총합을 계산해요.

00:39:32.158 --> 00:39:38.239
대상자의 납세액을 읽어 오고,
3의 값을 2의 값으로 나누어

00:39:38.339 --> 00:39:39.489
납세 비중을 계산한다.

00:39:39.589 --> 00:39:41.666
나머지 대상들도 3, 4의
과정을 반복한다 그랬는데.

00:39:41.766 --> 00:39:46.435
그런데 이 과정에서 단계
2에서 총합을 계산하는데

00:39:46.535 --> 00:39:51.073
각 납세자의 납세액을
불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.

00:39:51.173 --> 00:39:55.231
100만 분의 1초가
100만 명이니까 1초,

00:39:55.331 --> 00:40:01.251
총합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
1-100만 분의 1초가 걸리고,

00:40:01.351 --> 00:40:06.199
단계 3이 100만 분의 1초,
단계 4가 100만 분의 1초,

00:40:06.299 --> 00:40:12.673
단계 3과 4를 100만 번 반복하므로
이를 근거로 단계 1까지 합한

00:40:12.773 --> 00:40:16.626
전체 실행 시간을 계산해
보면 앞의 경우보다 시간이

00:40:16.726 --> 00:40:18.201

놀랄 만큼 단축되었음을
알 수 있다.

00:40:18.301 --> 00:40:21.816

그 계산 문제가 아마
뒤에 몇 번 문제야?

00:40:21.916 --> 00:40:23.837

5번 문제로 나올
거예요, 5번 문제.

00:40:23.937 --> 00:40:27.424

그럼 5번 문제 이거를 여기에서
바로 하고 갑시다, 여러분.

00:40:27.524 --> 00:40:28.519

보자.

00:40:28.619 --> 00:40:31.474

그러면 ☹, 1단계까지
합한 전체 실행 시간을

00:40:31.574 --> 00:40:33.395

계산해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.

00:40:33.495 --> 00:40:36.720

그러면 여기 이 나와 있는
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 돼요.

00:40:36.820 --> 00:40:41.020

우선 1단계에 몇
초가 걸릴지 볼까요?

00:40:41.120 --> 00:40:45.366

100만 명의 납세액을
입력받는다고 했으니까

00:40:45.466 --> 00:40:49.190

1명당 입력하는 데
100만 분의 1초잖아요.

00:40:49.290 --> 00:40:53.802

그러니까 100만 명을 입력하니까
100만 명×100만 분의 1초니까

00:40:53.902 --> 00:40:55.833

몇 초가 걸리는 거야?

00:40:55.933 --> 00:40:58.692

1초가 걸리는 거예요,
1초, 1단계가.

00:40:58.792 --> 00:41:00.435

이것만 확인하면 돼요.

00:41:00.535 --> 00:41:04.058

그다음에 2단계를 보면
100만 명의 납세액의 총합을

00:41:04.158 --> 00:41:07.163

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봐봐요.

00:41:07.263 --> 00:41:10.800

단계 2에서 납세자의 납세액을
불러오는 데 걸리는 시간 1초,

00:41:10.900 --> 00:41:12.923

총합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

00:41:13.023 --> 00:41:16.267

1-100만 분의 1초가
걸리고라고 되어 있죠.

00:41:16.367 --> 00:41:22.953

그러면 1초, 2단계의 1초 플러스,
총합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

00:41:23.053 --> 00:41:29.884

1-100만 분의 1초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41:29.984 --> 00:41:32.477

그다음에 3단계를 볼까요?

00:41:32.577 --> 00:41:36.698

3단계를 보면 대상자의
납세액을 읽어오는 데

00:41:36.798 --> 00:41:43.342

100만 분의 1초라고 얘기했고,
단계 4가 납세 비중을 계산하는 데

00:41:43.442 --> 00:41:46.137

100만 분의 1초가
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.

00:41:46.237 --> 00:41:50.724

그런데 단계 5를 보면 나머지
대상자들도 3, 4의 과정을

00:41:50.824 --> 00:41:54.686

계속 반복하니까 3단계가, 보세요.

00:41:54.786 --> 00:42:01.104

100만 분의 1초, 4단계가
100만 분의 1초인데

00:42:01.204 --> 00:42:09.361

그런데 이걸 100만 번 계속
하니까 1초, 1초 걸리겠죠.

00:42:09.461 --> 00:42:10.480

이해되겠습니까?

00:42:10.580 --> 00:42:17.802

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
1초, 1초, 1-100분의 1초,

00:42:17.902 --> 00:42:21.341

1초, 1초, 그러면
정답은 뭐예요?

00:42:21.441 --> 00:42:28.398
5-100분의 1초 이렇게 되겠죠.

00:42:28.498 --> 00:42:33.022
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면 5번에
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.

00:42:33.122 --> 00:42:36.832
그러니까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
나머지들은 전부 다 나왔어요.

00:42:36.932 --> 00:42:38.618
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.

00:42:38.718 --> 00:42:42.583
1단계를 구할 수 있느냐,
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.

00:42:42.683 --> 00:42:47.218
그다음에 두 번째는 3, 4단계가
나머지 대상들도 전부 다 반복한다니까

00:42:47.318 --> 00:42:51.740
100만 분의 1초가 100만 번 되고,
100만 분의 1초가 100만 번이겠죠.

00:42:51.840 --> 00:42:55.639
100만 번이 되니까 각각 1초씩
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

00:42:55.739 --> 00:42:59.798
그러면 전체 하나, 둘, 셋, 넷,
다섯, 5-100만 분의 1초.

00:42:59.898 --> 00:43:01.840
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.

00:43:01.940 --> 00:43:05.511
그러면 훨씬 더 많은
시간이 단축되는 거죠.

00:43:05.611 --> 00:43:09.225
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였냐면
555시간 이상 걸렸는데,

00:43:09.325 --> 00:43:13.353
그게 알고리즘을 바꿔버리니까
그 시간이 확 줄어든다는 걸

00:43:13.453 --> 00:43:14.429
확인할 수 있죠.

00:43:14.529 --> 00:43:15.978
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43:16.078 --> 00:43:17.366
1번을 볼게요.

00:43:17.466 --> 00:43:21.292
윗글에서 다른 내용이 아닌 것을

찾으라고 했는데, 간단하죠.

00:43:21.392 --> 00:43:24.805

컴퓨터 언어의 종류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답 5번이고.

00:43:24.905 --> 00:43:27.206

[A]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43:27.306 --> 00:43:28.053

아까 설명했죠?

00:43:28.153 --> 00:43:29.662

정답은 5번이었습니다.

00:43:29.762 --> 00:43:33.116

하위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, 정답 5번이고요.

00:43:33.216 --> 00:43:38.032

3번을 보면 ㉠과 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그랬는데.

00:43:38.132 --> 00:43:44.418

㉠은 뭐냐면 자동차 제조 공정입니다.

00:43:44.518 --> 00:43:46.309

㉡는 세금 계산하는 거잖아요.

00:43:46.409 --> 00:43:50.690

㉠, ㉡를 통해 현실 세계의 알고리즘과 컴퓨터 알고리즘의 차이 아니고요.

00:43:50.790 --> 00:43:53.633

㉠, ㉡는 모두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것을.

00:43:53.733 --> 00:43:54.915

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43:55.015 --> 00:43:56.221

쉬운 문제예요.

00:43:56.321 --> 00:43:59.176

그러니까 자동차 제조 공정을 바꾸는 거잖아요.

00:43:59.276 --> 00:44:02.665

그래서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이렇게 효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.

00:44:02.765 --> 00:44:05.196

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세금 계산할 때

00:44:05.296 --> 00:44:08.572

알고리즘 바꾸니까 효율적이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정답 2번.

00:44:08.672 --> 00:44:12.012

정렬 알고리즘하고 그다음에
탐색, 아닙니다.

00:44:12.112 --> 00:44:14.349

개발 과정 아니고요.

00:44:14.449 --> 00:44:16.074

실행에 미치는 영향 아닙니다.

00:44:16.174 --> 00:44:18.165

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.

00:44:18.265 --> 00:44:20.595

㉠에 대해서 탐구
학습을 한 것이다.

00:44:20.695 --> 00:44:24.722

(ㄱ)에 들어갈 배열의 수를 바르게
말한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,

00:44:24.822 --> 00:44:25.425

㉠이 뭐죠?

00:44:25.525 --> 00:44:26.697

버블 정렬입니다.

00:44:26.797 --> 00:44:28.995

버블 정렬은 서로 이웃한
두 데이터를 비교하여

00:44:29.095 --> 00:44:31.419

그중 큰 데이터를 뒤로
보내는 방식으로 해서

00:44:31.519 --> 00:44:35.398

가장 큰 데이터를 가장 뒤로
보내며 정렬하는 방식이에요.

00:44:35.498 --> 00:44:39.932

예를 들어서 15, 8, 5, 12, 3
수들을 버블 정렬의 방식으로 정리하면

00:44:40.032 --> 00:44:43.197

컴퓨터는 가장 먼저,
잘 보셔야 돼.

00:44:43.297 --> 00:44:50.518

15, 8, 5, 12, 3이니까 가장
먼저 15와 8 두 개 비교하는 거죠.

00:44:50.618 --> 00:44:52.345

그래서 15를 뒤로 보내는 거야.

00:44:52.445 --> 00:44:53.571

그럼 어떻게 될까?

00:44:53.671 --> 00:44:56.769

8, 15, 5, 12, 3
같은 배열이 되는 거예요.

00:44:56.869 --> 00:44:57.859

이해되겠니, 애들아?

00:44:57.959 --> 00:44:59.591

15와 8을 먼저 비교하니까.

00:44:59.691 --> 00:45:04.501

그다음에 다음으로 15가 또 5와,
15 하나가 계속 비교되는 거예요.

00:45:04.601 --> 00:45:06.482

15와 5를 비교하는 거죠.

00:45:06.582 --> 00:45:10.889

큰 수를 뒤로 보내게 되면 15를
뒤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?

00:45:10.989 --> 00:45:12.925

여기다 표현해 볼까?

00:45:13.025 --> 00:45:19.341

8, 5, 15, 12,
3 이렇게 되겠죠.

00:45:19.441 --> 00:45:25.326

그런데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
되냐면 한 회가 끝났을 때

00:45:25.426 --> 00:45:27.907

숫자의 배열은 15가 결국 맨
마지막으로 가는 거잖아요.

00:45:28.007 --> 00:45:31.609

그러니까 8, 5,
15가 뒤로 가.

00:45:31.709 --> 00:45:33.421

그러면 그다음 볼게.

00:45:33.521 --> 00:45:36.877

12, 15, 3이에요, 됐어요?

00:45:36.977 --> 00:45:39.896

그다음에 15가 뒤로 가야죠.

00:45:39.996 --> 00:45:41.544

그러니까 어떻게?

00:45:41.644 --> 00:45:46.237

8, 5, 12, 3,
15 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45:46.337 --> 00:45:50.948

이렇게 한 회가 끝난 거예요,
이렇게 한 회가 끝난 거야.

00:45:51.048 --> 00:45:54.765

15가 뒤로 가는 게
한 회가 끝난 거야.

00:45:54.865 --> 00:45:57.391

15가 그 뒤에 숫자랑
계속 비교되는 겁니다.

00:45:57.491 --> 00:46:02.718
그다음 다음 회의 작업이 처음 두
수를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.

00:46:02.818 --> 00:46:07.745
다음 회의 작업이 끝났을 때 숫자의
배열은 뭐가 된다, 보세요.

00:46:07.845 --> 00:46:09.700
그다음 숫자가 이거잖아요.

00:46:09.800 --> 00:46:12.124
그러면 이걸 비교하면
그다음 어떻게 변하냐면

00:46:12.224 --> 00:46:14.790
비교하면 뒤로 갑니다,
어떻게 돼요?

00:46:14.890 --> 00:46:17.190
5, 그다음 8이 뒤로 가죠.

00:46:17.290 --> 00:46:21.118
8, 12, 3,
15 이렇게 돼요.

00:46:21.218 --> 00:46:24.032
큰 숫자가 뒤로 가는데,
8이 뒤로 갑니까?

00:46:24.132 --> 00:46:25.677
12가 더 크니까 안 가죠.

00:46:25.777 --> 00:46:29.561
그러니까 5, 8,
12, 3, 15.

00:46:29.661 --> 00:46:36.139
최종적으로 한 회 작업이 끝났을
때 숫자 배열이라고 했으니까

00:46:36.239 --> 00:46:39.556
우리가 어딜 봐야 되냐면 이거로
끝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

00:46:39.656 --> 00:46:44.814
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
8이라고 하는 숫자가 12로 가고

00:46:44.914 --> 00:46:52.384
12라는 숫자하고 3이랑 또 비교돼야
되니까 5, 8, 3, 12, 15

00:46:52.484 --> 00:46:53.560
이렇게 되겠죠.

00:46:53.660 --> 00:46:57.719
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냐면

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.

00:46:57.819 --> 00:47:01.919
12하고 또 15가 비교되면 15가 더
큰 수니까 뒤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.

00:47:02.019 --> 00:47:06.032
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 정답이
되겠습니다, 아시겠죠?

00:47:06.132 --> 00:47:08.759
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버블
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.

00:47:08.859 --> 00:47:10.471
좀 어려운 문제네요.

00:47:10.571 --> 00:47:13.916
마지막 문제는 아까 우리가
앞에서 봤던 문제였습니다.

00:47:14.016 --> 00:47:17.677
5-100만 분의 1초,
이게 정답이 되겠죠.

00:47:17.777 --> 00:47:20.976
여러분, 여기까지 두
지문 살펴봤는데요.

00:47:21.076 --> 00:47:25.649
첫 번째는 폴즈의
정의론이 나왔었고요.

00:47:25.749 --> 00:47:28.174
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이라고
하는 게 나왔는데.

00:47:28.274 --> 00:47:31.623
알고리즘 문제 4번, 5번은
아주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.

00:47:31.723 --> 00:47:33.763
재미있는 문제보다는
조금 어려운 문제죠.

00:47:33.863 --> 00:47:36.028
어려운 문제이고,
거의 제가 봤을 때는

00:47:36.128 --> 00:47:38.222
수학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
하고 그렇습니다.

00:47:38.322 --> 00:47:39.706
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.

00:47:39.806 --> 00:47:41.848
다음 시간에 또 다른
내용 만나보겠습니다.

00:47:41.948 --> 00:47:43.794

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